

지난 5월 29일 남조선 《KBS》방송의 로조원 3 900여명은 김환영 《KBS》사장의 해임과 보도의 독립성, 제작의 자율성을 요구하여 무기한 파업에 돌입했다. 로조원은 물론 방송국의 부장을 비롯한 직원들까지 참가한 이 파업으로 인해 예정되었던 《KBS》방송의 프로그람들이 축소되거나 취소되는가 하면 《MBC》방송을 비롯한 다른 언론들에도 파업투쟁이 확대되고있다.

《KBS》사대로 불리워지는 이번 사태의 발단은 《세월》호참사취재와 보도과정에 드러난 청와대의 언론감입이었다. 《세월》호참사가 발생한 직후부터 《KBS》방송을 포함한 남조선의 거의 모든 언론들이 사고현장에서 취재와 보도활동을 벌리었다. 하지만 언론사들은 《정부》의 발표를 일방적으로 받아넘기거나 구조활동을 과장하여 보도하는 한편 유가족을 비롯한 피해자들의 울분과 요구를 외면하여 사람들의 분노를 자아냈다.

그런 속에서 5월초 《KBS》의 보도국장였던 김시곤은 《〈세월〉호참사로 인한 사망자수가 년간교통신사고로 죽는 사람수를 생각하면 그리 많은것이 아니다.》고 발언하여 이 보도를 폭발시키었으며 결국 사퇴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런데 김시곤은 자기의 사퇴를 발표하는 기자회견장에서 충격적인 사실을 폭로했다.

《KBS》사장인 김환영과 청와대가 자기에게 사퇴할것을 강박하였으며 자기의 재임기간 보도관련압력을 청와대로부터 수시로 받았는가

벗겨진 남측 《언론자유》의 실상

하면 《세월》호사건취재보도에서도 해양경찰에 대한 비판을 자제하라는 요구가 있었다는것이었다. 뿐만아니라 박근혜가 《대통령》으로 취임한 이후 단 한차례도 《KBS》가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내보내지 못하였으며 《대통령》과 관련한 보도는 항상 9시보도앞쪽에 배치되는 원칙이 있었다는것도 자백하였다.

그의 이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KBS》의 로조들도 편속 충격적인 사실들을 공개했다. 13일 《KBS》로조는 신임보도국장이 청와대관계자와 접선했다는것을 밝혀왔으며 18일에는 《KBS》기자협회가 김환영사장의 보도개입과 청와대가 9시보도를 어떻게 통제했는것 보여주는 《보도의압입지》를 공개하며 사과문을 발표했다.

남조선 각계는 이번 사태를 두고 《KBS》는 지난 1년 5개월간 《정권》의 나팔수요, 권력의 방패였다.》, 《청와대의 방송보도판어는 명백한 불법》이라고 하면서 사이비언론으로 전락한 《KBS》방송의 경영진과 청와대에 대한 규탄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번에 남조선에서 터진 《KBS》사태는 많은것을 시사해주고있다.

그것은 우선 언론이 자기의 생명인 객관성과 공정성, 진실성을 잃고 외부의 압력에 휘둘리우게 된다면 정의와 진리를 대변해야 하는 언론의 사명을 다할수 없으며 민심의 외면과 버림을 받는

다는것이다. 《세월》호참사 이후 남조선에서 새롭게 만들어진 급속히 퍼진 《기레기》라는 낱말이 이것을 증명해준다. 《기자》와 《쓰레기》라는 단어의 합성어인 이 말은 언론을 토대로 복계기로 무책임하고 무능력한 《정부》에 대한 유가족을 비롯한 인민들의 원한과 증오를 외면하고 《정부》에 발라맞추는데 급급한 남조선 언론들에 대한 민심의 준엄한 경고이라고 할수 있다.

《KBS》사태는 또한 남조선당국이 북남고위급접촉에서 상대방에 대한 비방증상을 중지할데 대한 합의를 이룩하고도 보수언론들의 북의 존엄과 체제에 대한 비방증상을 《언론의 자유》라고 국구 옹호한것이 결국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것을 보여주고있다.

김시곤이 기자회견에서 폭로한바와 같이 《KBS》방송은 지난 리명박 《정권》때 임명된 사장때부터 《정권》에 유리한 내용은 확대방송하고 불리한것은 잘라버리는것을 관행으로 일삼아왔다. 《KBS》사장이 보도에서 《〈대통령〉을 모시는 원칙》이라는것을 강조했는가 하면 지난 《대통령선거》당시 정보원의 공작과 관련한 사건보도에도 청와대의 지시를 받고 개입했다는 것이었다.

이 시점에서 《청와대를 모시는 자제》가 것처럼 《투철》한 《KBS》방송이 지난 시기 북남관계와 관련된 문제에서는 어떻게 보도활동을

벌리었는지 돌이켜보지 않을수 없다.

지난해에도 《KBS》방송은 《남북의 창》이라는 방송프로에서 인간쓰레기들과 미국첩보기관에서 얻은 《정보》라는것을 토대로 북에서 《화학무기인체실험이 감행되었다.》고 불어댔는가 하면 박근혜가 들고나온 비무장지대안의 《세계평화공원》이라는것은 《세계적유산으로 만들수 있다.》느니, 《중국의 만리장성 못지않는 민족의 큰 유산으로 될수 있다.》느니 하며 국구 추어올렸다.

최근 시기에도 《KBS》를 비롯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은 얼굴을 가리운 《북주민》들을 《출연》시켜 북에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내고 공화국의 존엄과 체제를 헐뜯는 등 북남관계를 악화시키고 동족대결을 고취하는데서 주역을 놀고있다.



《KBS》방송사 사장퇴진과 박근혜의 사과를 요구하여 투쟁

뿐만아니라 《KBS》방송은 지난 시기에도 악질친일분자이며 동족대결미치광이였던 백선엽과 리승만까지 미화분식하는 방송을 내보내는 등 민족과 시대의 넘원과 요구에 이행하는 반민족적이과 반통일적인 사이비언론추태를 일삼아 남조선 각계층의 분노를 불러일으켜왔다.

이번 《KBS》사태는 결국 지난 시기 《KBS》를 포함한 남조선의 보수언론들이 《언론의 자유》라는 간판밑에 진행해온 모든 언론활동이 철두철미 남조선보수집권세력의 지휘와 조종밑에 이루어진것이며 그들이 떠들어온 《언론의 자유》란 사람들의 눈과 귀를 속이기 위한 빛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는것을 만천하에 폭로하고있다.

《KBS》사태는 남조선보수패당이아말로 북남고위급접촉합의파괴의 장본인, 국도의 대결광신자들이라는것

전철호

지난 5월 30일 남조선의 교부장관 윤병세가 서울에서 열린 한 모임에서 박근혜의 《드레즈덴선언》을 두고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제안》이라느니, 《북이 이 구상에 응용하면 신뢰를 쌓고 더 큰 규모의 교류와 협력을 해나갈수 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귀간지러운 소리를 늘어놓았다.

세상에 나오자마자 내외의 규탄배격속에 구겨진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마치 《획기적인 통일방도》나 되는것처럼 떠들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것을 미화분식하려고 애쓰고있는 남조선위정자들의 추태가 가소롭기 그지없다.

박근혜가 제창한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은 한마디로 기초가 없는 공중무각이나 같다.

어떤 대상을물을 하나 창조하고 건설하자고 해도 기초가 있어야 하며 그것이 없이는 모래불위에 성을 한가지진것이다.

남사이의 관계부터가 개선되어야 하며 북남관계가 개선되는가 마는가 하는것은 철두철미 북과 남이 상대방을 어떻게 보고 대하는가 하는 립장과 태도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런데 박근혜는 《드레즈덴선언》이라는데서 북남관계를 개선하겠다는 의지는 전혀 보이지 않고 《인도적 문제해결》,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동질성회복》과 같은 지엽적이고 사팔사적인 문제만을 들고나왔다. 이 《대북3대제안》이라는것을 기본내용으로 하는 《드레즈덴선언》이 북과 남, 해

외 온 겨레의 한결같은 배격을 받고있는것은 바로 거기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 평화와 통일을 이룩할수 있는 방향과 방도가 없고 《체제통일》의 망상이 깔려있기때문이다.

지난간 6.15시대를 돌이켜보아도 북과 남이 민족자주의 원칙에서 우리 민족끼리의 립장에 확고히 설 때 그속에서 교류와 협력도 나오고 신뢰도 조성된다는것을 실천으로 증명하여주었다. 올해에 들어와서도 공화국은 신년사와 증대보도, 공개서한을 통해 북남관계개선의 의지를 천명하였으며 하여 북남고위급회담이 진행되고 홀어진 가족, 친척들의 상봉도 이루어지게 되었다. 그러나 공화국에 대한 체질적인 대결의식과 거부감이 사로잡혀있는 박근혜 《정권》에 의하여 시작을 잘 때었던 북남관계는 또다시 악화일로의 길을 걷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그것은 바로 동족에 대한 자제와 립장이 바로 서있지 않고 불신과 대결의 분위기가 계속되는 한 그무슨 《교류와 협력》이란 있을수 없으며 그속에 서 《신뢰》를 바란다는것은 나무우에서 물고기를 구해보겠다는 허황한 망상이라는것이다.

남조선의 집권세력은 허망한 《드레즈덴선언》이라는것을 계속 떠들것이지 아니라 동족에 대한 적대적인 대결 자세부터 버려야 하며 북남관계를 더욱 악화시키는 도발적인 언행들을 삼가하여야 한다.

본사기자 김명성

남조선당국이 미일과의 군사적결락에 기를 쓰고 매달리고있다.

최근 싱가포르에서 미일 남조선국방장관회담과 미국 남조선국방장관회담이 진행되었다. 회담들에서는 북의 《핵과 미사일위협》을 중심으로 그 무슨 《정보공유성의 중요성》이 재확인되고 미일 남조선이 군사정보공유문제를 적극 검토해나가며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전지구적 전통체권전환》재연기시기를 결정하기 위한 고위급상설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하였다고 한다.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어리석은 시도가 아닐수 없다.

다 아는것처럼 미일과의 군사적결락은 남조선당국이 추구하고있는 동족대결소동의 한 축을 이루고있다. 이러한 군사적결락관계에 빈

시대의 흐름에 역행하는 《대북압박공조》놀음

구멍이 생기는것을 누구보다 두려워하는것이 남조선당국자들이다.

이번에 남조선당국이 또다시 미국일본과 함께 국방장관회담들을 가지고 《군사정보공유량해각서》체결과 《전지구적 전통체권전환》전환시기를 확정하기로 한것 등은 어떻게 하나 시대착오적인 《대북압박공조》를 유지해보려는 음흉한 기도의 발로이다.

이른바 《군사정보공유량해각서》라는것이 공화국의 핵과 미사일에 《대응》한다는 미명하에 서로 군사비밀을 교환하는 협정이라는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현

남조선당국은 민심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혀 그만두지 않을수 없었던 일본과의 《군사비밀보호협정》체결을 미일남조선 《군사정보공유량해각서》이라는 미명하에 교묘하게 체결하려 하고있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이 미국과 《전지구적 전통체권전환》재연기시기를 결정하기로 한것도 마찬가지로

지난 3일 남조선미국련합군사령관은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인 《싸드》의 남조선배치문제와 관련하여 《언론에서 현재 사전조사연구가 이뤄진다는 식으로 묘사했지만 그 정도라기보

다는 남조선에 《싸드》를 전개하기 위한 최종검토가 이뤄지는 수준》이라고 밝혔다.

이것은 남조선당국이 미국이 추진하고있는 범죄적인 《전역미사일방위체계》에 적극 가담하려 하고있다는것을 말해준다.

지금까지 남조선군부당국은 《중심이 짧은 〈한〉반도 특성상 고고도, 중고도요격은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참가를 강력 부인해왔다. 하지만 이것이 내외여론을 기만하기 위한것에 불과하다는것이 이번에 명백히 드러나게 되었다. 내외여론

들은 일치하게 남조선당국이 《전지구적 전통체권전환》전환시기를 연장하는 대가로 미국의 《전역미사일방위체계》참가를 적극 추진하고있다고 평가하고있다.

제반 사실들은 남조선당국이 미일과의 군사적결락강화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는것을 뚜렷이 실증해주고있다.

공화국과 끝까지 대결하여 북침전쟁의 불집을 기여이 리뜨리려는 남조선당국의 대결광기는 오늘 조선반도는 물론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정세를 파괴하는 엄중한 요소로 되고있다.

남조선당국은 전쟁을 반대하고 평화를 지향하는 대세의 흐름을 똑바로 보고 더이상 시대착오적인 《대북압박공조》에 매달리지 말아야 한다.

본사기자 박철남

얼마전 남조선보수패당이 북의 국정일대의 《주민》이라고 하면서 한 열간이를 언론에 내세워 공화국의 실상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시비하는 광대국을 연출했다. 가판은 얼마 안있어 보수패당이 모략국에 내세운 《북주민》, 《민생인프라구축》, 《주민간동질성회복》

얼마나 반공화국모략소동에 미쳐날뛰었으며 가짜 《북주민》까지 내세워 공화국의 제도를 헐뜯는 놀음을 벌려놓았겠는가.

지난 시기에도 남조선보수패당은 북의 현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 사랑하는 혈육들을 버리고 달아나, 고향과 조국을 배반한 인간쓰레기들을 내세워 북의 제도가 어떻게, 인권이 어떻게 하는 나발을 불어댔으며 존엄높은 공화국의 최고권리와 체제를 헐뜯는 베라살도놀음까지 벌려놓았다.

사람값에도 못드는 《탈북자》어중이떠중이들을 내세워 공화국을 헐뜯는것은 보수패당이 반공화국모략소동의 일환으로 늘 써오던 상투적수법이었다.

이런 너털한 방법으로 동족간에 불신과 대결을 조장시키는 보수패당의 반민족적행위로 하여 북남관계는 계속 악화일로만 치닫고있는것이다.

그런데 보수패당은 저들의 행위에서 심각한 교훈을 찾을 이제 는 가짜 《북주민》까지 내세워 공화국을 헐뜯고있으니 이 얼마나 치졸한 모략국인가 하는것이다.

보수패당이 광대국에 내세운 등장인물자체가 가짜인데 그가 내뱉는 소리가 진실일리 만무한것이다.

공화국의 물과 공기를 마셔보지 못한 《배우》가 무대에 올라 연기를 하면 얼마나 잘하며 《관중》은 또 어떻게 감동시키겠는가. 서툰 《연출가》에 가짜배우의 연기는 그 누구에게도 통할수가 없는것이다. 보수패당이 연출한 이번 광대국이 모두의 조소를 자아냈것은 웅당한 귀결이다. 이런 기만국에 계속 매여달린다면 보수패당에게 차례질것은 파멸밖에 없다는것을 똑똑히 명심해야 한다.

리경순

《귀순》이 아니라 공공연한 랍치행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적십자회 중앙위원회 대변인담화를 통해 남조선당국이 고기잡이를 위해 바다에 나갔다가 동해상에서 조난당해 남쪽에 떠밀려간 우리 선원들중 1명만 돌려보내고 2명은 부당하게 억류하고있다는 소식에 접하여 치초는 분노를 금할수 없다.

지금에 어느때인데 밝은 이 세상에 어 백주에 우리 주민을 강제억류할수 있단 말인가. 재난당한 사람들을 구조하고 방조를 주어 자기 지역으로 돌려보내는것은 초보적인 인도주의원칙이고 국제적으로 보편화된 판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민들을 강제억류하고있는것은

한조각의 동포에도, 인간의 양심도 없는 무지막직한 강대행위라 하지 않을수 없다.

남조선의 불한당들이 우리 주민들이 《귀순의사를 표시》했다면서 잡아두고있는데 하다면 그들을 판문점에 데리고나와 직접 대면하게 하라는 우리측의 요구에 왜 응하지 못하고있는가. 진짜 그들의 자유의사에 따라 남쪽에 떨어지기로 했다면 우리가 보는 앞에서 그들의 입을 통해 직접 진실을 들으면 될것이. 그것을 거부하는것은 결국 진실이 세상에 드러나는것을 두려워하는 반종이고 이번 사건이 명명백백한 랍치행위라는것을 말해주는것이다.

남조선당국은 얼마전에도

서해에서 고기잡이하던 우리 주민들을 백령도에 강제 랍치하여 《귀순》을 강요하다가 우리 인민군대의 서리 발간 경고를 받고 마지못해 놓아준적이 있다. 우리 공민들에 대한 불법적인 랍치행위야말로 파쇼와 대결, 모략과 랍치를 밤덕듯 하는 남조선의 독재 《정권》의 체질적인 버릇이다.

우리 공화국의 주민들을 랍치하는 행위는 절대로 용서받을수 없다. 남조선당국은 더 무리없는 제법을 걸어서 치우고 우리 주민들을 당장 조국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야 한다.

평안남도 숙천군인민위원회 부원 김명찬

정의의 총대는 랍치범들을 용납치 않는다

남조선피괴도당이 조난당한 공화국주민들을 억류하고 그 무슨 《귀순》나발을 불어대며 판문점에서의 확인마저 거부한다는 소식에 접하고 온몸에 분노가 용암처럼 끓어올랐다.

지난 세기 90년대중엽에 조선인민군 군인으로 복무하고있던 나는 입수행중 갑자기 밀려드는 해일도 망망대해에 표류하다가 남조선에 억류된적이 있었다.

그때도 남조선피괴도당들은 나에게 귀순을 강요하며 갖은 회유와 기만술책을 다 하였으며 그것으로도 통할수 없게 되자 위협공갈까지 서

슴지 않았다. 어떻게 하나 존엄높은 공화국의 영상에 흠칠을 하고 저들의 반공화국모략선전에 리용해보려고 돈과 물품으로 유혹하고 나중에는 여자들까지 들이밀면서 갖은 방편까지 써서보던 괴뢰들의 치사한 물골을 생각하면 지금도 구역질이 나는것을 참을수가 없다.

놈들의 비렬하고 너털한 행적에 대하여 실체험을 통하여 절감한 나는 이번 사건이 《귀순》이 아닌 랍치이며 계획적인 도발이라고 생각한다.

조국보위, 인민보위는 조

선인민군의 사명이다.

지금 우리 인민군장병들은 반공화국대결소동에 미쳐날뛰며 평화적주민들을 억류하고 그들의 송환을 가로막고있는 남조선피괴패당을 당장 처형없고 물리적으라도 불법 랍치된 우리 주민들을 찾아오자고 서리발 총창을 으스러지게 추격하고있다.

정의의 총대는 랍치범들을 용납치 않는다.

남조선당국은 우리 인민군대의 분노와 멸적의 의지를 똑바로 보고 무리하게 억류하고있는 우리 주민들을 당장 돌려보내야 한다.

조선인민군 군관 정광선

삶은 독재 정치, 따라가는 종말

던 아이도 울음을 툭 그칠정도였으니 파쇼독압정치가 얼마나 소름끼치는 정치였는가 는 알고도 남음이 있다.

록로된 사실들은 《정권》유지를 위해서라면 남조선인민들의 초보적인 인권마저도 모조리 유린말살하여 온 남녘땅을 피비린 살륙장으로 만든 《유신》독재에 대한 력사의 엄정한 판결이다.

하기에 피해자가족들을 비롯한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은 이 사건을 두고 《박정희 〈정권〉이 〈유신〉독재를 유지하기 위해 조작한 명백한 국가폭력사건》, 《불법 감금한채 온갖 가혹행위를 벌려 허위자백을 받아내 치형한 사법살인행위》라고 강력히 규탄하고있으며 이번 무죄판결이 《유신》파쇼독재를 부활시키는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린것으로 된다고 하면서 당국의 사과를 촉구해나서고있다.

문제는 《유신》독재의 바통을 이은 현 보수당국에 의해 지금 남조선에서 파쇼독재부활과 반인민적불통정치가 정당화되고 동족대결을 몰아오기 위한 반공화국모략소동이 더욱 광란적으로 벌어지고있는것이다.

현 남조선집권세력은 불법적으로 권력을 탈취한 저들의 회행을 가리우기 위해 서술시공무반건첩사건과 그 무슨 리석기내란음모사건을 조작하여 민심의 눈초리를 다른데 돌려보려고 하는가

하면 자주,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단체들과 인사들을 《총북》으로 몰아 가차없이 탄압하고있으며 지어 《세월》호참사와 같은 당국의 비인간적대행을 규탄하여 펼쳐나선 유가족들과 인민들의 투쟁마저 무차별적으로 탄압하고있다.

이러한 박근혜 《정부》의 파쇼적광기는 남조선인민들의 보다 큰 항의와 분노를 불러일으키고있다.

수백명의 나 어린 학생들을 물속에 수장시킨 《세월》호사건을 계기로 오늘날 남조선민심은 황금만능에 빠져 사람의 목숨보다 돈만을 우선시하며 《정권안보》를 위해 파쇼독재정치에 더욱더 광분하고있는 현 당국의 퇴진을 강력히 요구하고있다.

거짓과 모략이 드러나는것은 시간문제일뿐이며 진실은 어느때든 밝혀지기 마련이다.

최악의 《정권》위기에 빠진 현 남조선당국자가 그에서 벗어나기 위해 《복종》조작과 《총북》몰이, 민중의 정당한 투쟁

력사는 오래지 않아 현 파쇼 《정권》이 조작한 모든 모략사건들의 진상과 반인민적정체를 낱알이 드러내게 할것이며 인민들은 동족대결광신자, 반인민적악정의 죄인들을 철저히 심판하고야말것이다.

본사기자 서희



서울에서 범국민초불집회 진행, 1만여명의 각계층 군중 참가